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사무실 063-2400-241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음 7월 16일) 제1625호

www.jj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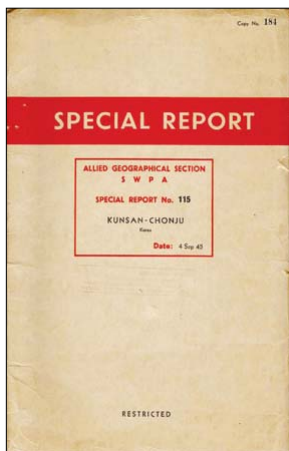
대표전화(063)288-9700

해방직후 전북지역의 모습 담은 미군 보고서 발견

악명높은 '카미카제 특공대' 군산 비행장 안에서도 양성

도-군산시, 동국사 소장 일제 유산 조사서 발견

현재 잘 알려지지 않은 '다치아라이' 정보 수록
패전 후 미군들이 주둔



해방 직후 전북의 모습을 담은 미군이 작성한 특별보고서 표지.

해방직후 미군이 전북지역과 관련해 작성한 특별보고서가 발견돼 당시 시대상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도는 군산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동국사 소장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학술조사' 과정에서 미군이 제작한 전주·군산 영문판 특별보고서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는 해방직후 미군이 작성한 전북 관련 최초 기록으로서 전주와 익산, 군산 등 전북 일대의 주요 시설과 군산비행장 등 다양한 중요 정보를 담고 있어 당시 시대상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육군태평양지역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1945년 9월 2일 동경에서 남한의 38도선 분할점령을 발표하고, 9월 8일에는 미육군 24군단(군단장 하지 중장)이 인천에 상륙하여 조선총독에게서 항복문서를 받고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했다.

맥아더 장군 명령에 의해 작성된 문건으로 보이는 이 기밀문서는 9월 4일자로 제출했는데, 38도선 이남의 분할점령을 앞둔 미군이 진주하기에 앞서 상륙해 점령할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보인다. 이번에 발견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서남태평양사령부(SWPA,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는 한국에 인천-경성(SR109), 부산(SR111), 군산-전주(SR115) 등 3개 지역, 일본에 9개 지역, 구 소련에 1개 지역 등 모두 13개 지역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고서는 그 중에서 군산과 전주지역에 대한 보고서 문건이다.

첫 부분은 12장에 걸쳐서 다양한 지리적 정보, 군사 시설 및 산업 시설, 항만, 철도 등 교통·통신정보, 활주로 길이 및 좌표, 방송 시설, 생활 실태, 기후 정보를 담고 있다. 둘째 부분은 9장의 사진과 9장의 지도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군산비행장 내에 설치된 다치아라이 비행학교 정보도 담겨져 있어 주목된다. 1940년 10월 1일 설치된 이 비행학교의 설치 목적은 '다치아라이 비행학교령' 제 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주로 소년비행병이 될 생도들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다치아라이는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지역명으로 태평양전쟁시기 동양 제일의 비행장과 비행학교 등의 관련시설이 집중된 곳이다.

특히 다치아라이 비행학교는 태평양전쟁 말기에 가미카제 자살특공대를 양성한 산실로 유명하며, 현재 다치아라이 평화기념관이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치아라이 비행학교는 최초 군산과 일본에 2개교 등 3개 학교를 설치·운영하다가 패전이 가까워지자 한국에는 서울, 대구, 대전 등 3개의 분교를 추가 설치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일본의 패전과 함께 미군 비행장으로 바뀌고 미군이 주둔하게 된다.

이번에 발견된 미국동사령부 제작, 전주, 군산 영문판 특별보고서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공간까지의 중요한 역사적 사료 발굴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동국사는 일제강점기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 6,000여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이다.

소장된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목록화하고, 향후 소장 문화유산의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평가해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전라감영이 있었던 전주부성의 4대문 가운데 전주부성 서문의 모습이 온전히 담긴 사진이 발견돼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와 군산시 지원으로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9월 말 완성을 목표로 5개월째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대통령과 악수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전국 시·도지사와 오찬 간담회 전 송하진 전북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폭염 맹위에 도내 가축 120여만 마리 폐사

전국 최고치... 종류별로 닭이 117만 마리로 가장 많아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북지역에서 최근 한 달 동안 닭·오리·돼지 등 가축 120여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높은 수치이며 사육 중인 가축의 4.7%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한 달 동안 폭염으로 인한 가축 사육농가 피해를 조사한 결과, 122만8,27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가장 컸고 전남(65만1,000여마리), 충남(58만여마리),

경북(36만1,000여마리) 등이 뒤를 이었다.

폐사 가축 종류별로는 닭이 117만 7,589마리로 가장 많았고, 오리(2만 8,416마리), 돼지(2,267마리), 기타(2만 마리)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정읍이 28만2,352마리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익산 21만5,045마리, 남원 18만703마리, 김제 12만3,415마리, 고창 10만6,631마리의 순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역대 최대의 폭염 피해 보험금이 농가에게 지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축 폐사에 따른 재산피해는 추정

보험금 기준으로 45억4,800만원에 달했다.

축종별로 보면 닭이 35억4,200만원, 돼지 8억4,800만원, 오리 1억3,700만원 등이다.

폭염이 당분간 지속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양계농장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도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기술지도와 조기출하 지도 등 대응 활동 강화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올해 폭염이 지난해보다 일찍 시작됐고 폭염 기간도 길어 가축피해가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2016 리우올림픽 → 관련기사 13면



'태권도' 오혜리, 캐나다 뛰어넘기 '다이빙' 우하람, 10m 플랫폼 예선

2016 리우데자네이루 개막 15일째인 20~21일(한국시간) 한국 선수단의 막판 메달 사냥은 계속 된다.

20일 오전 12시 태권도 여자 -67kg 예선에서 말안니 오혜리(28·춘천시청)가 출격한다. 오혜리는 벨리사 파노타(캐나다)와 예선을 치른다. 오혜리는 세 차례 도전 만에 끝에

그리던 올림픽 무대를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적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갖췄다고 평가 받았지만 큰 대회를 앞두고 번번히 고배를 들었다.

오전 2시30분에는 육상 여자 20km 경보에서 여자 전영은(28)·이정은(21·이상 부천시청) 이다슬(21·경

기도청)이 출격한다.

오전 2시50분에는 손연재가 리듬체조 개인종합 예선로테이션3를 이어가고, 오전 4시 '한국 다이빙의 미래' 우하람(18·부산체고)이 다이빙 남자 10m 플랫폼 예선에서 선다.

오후 7시에는 112년 만에 올림픽에 돌아온 골프에서 태극남자들이 개인전 4라운드에 돌입한다. 21일 오전 12시15분 태권도 남자 +80kg 예선에는 차동민(30·한국가스공사)이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김민근 기자

▶ 메일 INDEX

2면 카드사에 200여억원 연체

카드사 대납 연체 보육료가 지난 6월까지 2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면 '당대표가 되면 전북에 힘 보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당대표 후보가 17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했다.

5면 전주대 4인방, 자동차대회 '승리자'

전주대 JMF팀이 군산시 개최한 대학생 자동차대회 포물라부문에서 우승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읍 '九景' 구경 오세요!

역사 · 문화 · 관광 · 자연이 어우러진 대표적 명소 각광!

1. 내장산 단풍터널

2.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

3.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4. 무성서원과 상춘공원

5. 백제가요 정읍사문화공원

6. 피향정 연꽃

7. 정읍천 벚꽃길

8. 전설의 쌍화차거리

9. 백정기 의사 기념관